

# — EIAK 소식 —

## 제84차 이사회 개최



본회 제84차 이사회가 지난 12월 3일 개최되었다.

본회 구자학 회장과 임원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는 최근 전자산업 경기동향 및 전망을 보고하고, 사적복제 보상금제 도입저지 등 정책사업을 보고했다.

한편 업계공동 사업인 CATV시범방송 참여, TDMA방식 단말기 공동개발 사업 조성, 전자의료기기산업 발전 방안 건의, 리사이클 연구센터 설치, 국내 가정정보 버스 표준규격 제정 등 본회 산하 각 협의회의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했다.

또한 본회 자체사업인 '93한국전자전 개최 결과, 한·EC전자사업 포럼 개최, '94년도 단체표준화 사업 예산 확보, 학계·연구소 개발기술 업계이전 추진 상황 등을 보고했다.

## '94 전자산업전망 세미나 개최

본회(회장: 구자학)는 '94년도 기업의 경영계획과 정부의 전자산업 발전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키 위해 12월 3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구자학 회장 등 200여명의 전자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94년도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상헌 한국은행 부부장의 『우리나라의 경제동향과 전망』을 필두로 강영기 삼성 경제연구소 실장의 『세계 전자시장의 동향과 전망』 발표 후 본회가 265개 주요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이병성 금성사 이사의 『가전산업 전망』, 전재석 대우통신 이사의 『컴퓨터산업 전망』, 홍경 금성통신 이사의 『통신산업 전망』, 장홍조 현대전자 전무이사의 『반도체산업 전망』에 관한 발표후 끝으로 김시균 삼성전기 전무이사로부터 『전자부품산업 전망』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본회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경기가 금년보다 호전될 것으로 보는 업체가 전체의 63%인데 비해 더 악화될 것으로 보는 업체는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호조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기술력이 부족한 관계로 조사업체의 86%가 다소 호전쪽으로 응답했으며 호조시기는 선진국들의 경기동향으로 보아 하반기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시장은 경기의 완만한 회복과 월드컵 경기 특수영향이 기대되고 있으나 후발개도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제품과 가격경쟁에서 밀리고 있어 오디오, VTR, C-TV 등은 고



전이 예상되고 휴대형 전화기, 반도체, 컴퓨터 모니터 등은 호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EC시장은 경기회복 속도가 더 완만하고 현지 통화가치 영향과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내년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나 금년보다는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모니터, 위성방송 수신기 등은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카오디오, 자기테이프 등은 계속 고전될 전망이다. 일본시장은 경기 부양책 등으로 수요는 금년보다 나아질 전망이나 엔화절상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OEM수출은 금년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경기는 가전제품의 보급이 상당수준에 이르러 제품의 고급화에도 불구하고 금년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용기기는 금년보다 설비투자의 증가, 정보화의 진전 등으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자부품은 고정밀화 부품이 수요가 증대되고 기존의 범용부품은 그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내년 전자산업의 생산은 금년보다 12%가 증가한 약 32조원에 이를 전망이며, 수출은 119%가 증가한 251억불, 로컬수출은 125%가 증가한 41억불, 시판은 98%가 증가한 8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가정용기기의 경우 수출이 47%가 증가하고, 시판은 69%가 늘어난 생산은 금년보다 49%의 비교적 낮은 성장이 예상되고, 산업용기기는 수출이 213%, 시판이 123%가 증가되어 생산은 17%의 높은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전자부품은 수출이 117% 시판이 122%

의 증가로 생산은 143%의 견실한 성장이 예상된다.

내년의 전자업계의 투자는 금년보다 27.6%가 증가한 4,900억원에 이를 전망이며 이 가운데 시설투자는 27.4%가 증가된 3조 7,900억원, 기술개발투자는 28.4%가 증가한 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가 증대되는 분야는 반도체, LCD, CPT, 리드프레임 등의 핵심부품과 모니터, 이동통신기기, 냉장고 등의 신증설 투자도 증대될 전망이다.

전자업계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43건에 1,964억원 상당의 해외투자를 할 계획인데 이는 국내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품목구조를 고도화하고, 이미 성숙화된 제품은 적극적인 국제화를 통해 차별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의 진전이 가속화 되고 있다.

### 한·EC 전자산업 포럼 개최

본회는 EC 집행위와 공동으로 지난 12월 1일에서 3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한·EC 전자산업 포럼을 개최하고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EC간 전자산업의 상호협력 증대를 위하여 개최된 이번 포럼은 EC측에서는 질아누이 주한 EC대사, EC 집행위 존슨 박사 등이 EC의



대의 통상정책, 전자산업정책, EC의 시험검사 및 인증제도 표준화에 관하여 발표했으며, 한국측에는 삼성전자 강진구 회장, 상공자원부 이희범 전자정보공업국장 등이 한국의 전자산업 분야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EC 집행위가 지원하는 한국 최초의 전자산업 포럼으로써 필립스, 지멘스 등 유럽의 30여개 주요 전자업체 대표들이 방한, 60여 한국 전자업체 대표와 세미나, 기술협의를, 산업시찰을 통하여 한국기업과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동 포럼기간중 한·EC간의 합작투자, 기술이전, 부품공급 등에 관한 개별상담도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대 EC 전자수출은 지난해 31억 달러에 달했으며 올해 10월 현재 25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본회 제 30회 무역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지난 11월 30일 삼성동 KOEX에서 개최된 기념식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관계인사와 수출입유공자, 무역업계 대표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본회의 전자산업의 수출증대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앞으로 전자산업의 기술혁신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출을 크게 높이라는 격려로 받아들여 진다.

### 전자업체 공장자동화 우수공장 방문

본회의 공장자동화추진협의회는 지난 11월 10일 업체의 공장자동화 추진 담당자를 중심으로 전자업체 공장자동화 우수공장을 방문했다.

(주)한미정밀전자 박용진 공장장 등 38명의



방문단을 구성 (주)인켈, 금석전과(주), 신성전자정밀(주) 등을 차례로 방문했으며 방문자 모두가 생산현장에서 직접 자동화와 생산성 배가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타업체의 자동화 라인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이번에 방문한 (주)인켈, 금석전과, 신성전자정밀(주) 등은 인력확보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의 특성상 자동화 추진에 국내 자동화기기 업체가 외면, 일본업체로부터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동화 시스템의 90% 이상이 일본산으로 밝혀졌으며 국내 업체간 공장 개방 등 정보 교류가 활성화 되어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독일 의료기기 공장견학 및 전시회 참관

본회의 전자의료기기산업협의회는 지난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간 독일 MEDICA '93 참관과, 의료기기제조업체 공장을 방문하는 참관단을 구성 파견했다.

이번 참관단은 MEDICA '93 전시회를 참관했는데, 국내 업체에서는 (주)메디슨, 세인전자가 출품했다.

동전시회는 초음파 영상진단기 및 X-Ray 등이 주종을 이루었고 병원 플레이트, 외과용 수술기기, 스트레스 측정기 등이 다수 출품됐다.



기능면에서는 선진국과 다소 차이점이 있으나 제품의 외관 디자인 및 Moving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내 업체는 기능측면 뿐만 아니라 외관 디자인 및 동작 등 복합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하며 산·학·연을 적극 활용 연구개발에 한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일 지멘스 공장을 방문. 동사의 연구개발 현황을 둘러보고 동사의 연구개발은 앵겔렌대학 의공학과에서 연구개발하며 상업화 연구는 동사의 실험실에서 연구개발하고 있다.

동사는 혈관조명촬영기, X-Ray, CT 등 최첨단기기의 디자인, Moving기술이 뛰어나며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다양한 프로브가 개발중에 있고 제품을 최대한 소형으로 제작하면서 기능은 다양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온도계수 서미스터 표준화규격 설명회 개최

본회의 부품산업협의회 서미스터 표준화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 부온도계수 서미스터 표준화규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부온도계수 서미스터 제품의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을 기하며 수요 및 생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킨 사업의 일환으로 '92년부터 수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부온도계수 서미스터(NTC Thermistor)제품에 대한 용도별 구분, 제품별 외형규

격,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시험규격, 온도별 저항 특성 등의 제품규격을 확정하여 수요업체에게 양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 표준화 규격을 제정 시행하게 된 것이다.



### '93 공업발전기금 지원 설명회 개최

본회는 지난 11월 25일 대회의실에서 전자분야에 관심을 갖은 100여명의 개발담당자들이 참석, '93년도 공업발전기금중 전자 시제품 분야 개발자를 위한 지원 및 신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자 시제품 분야 지원규모가 총 86억원으로 융자금리 65%, 2년거치 5년을 융자기간으로 하고 있다.



## 가전산업협의회

**동** 협의회는 지난 11월 24일 본회 회의실에서 가전제품 가격표시제도와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가전제품 가격표시제가 가전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을 협의 했다.

**동** 협의회는 VTR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회의를 본회 회의실에서 지난 11월 26일 개최하고 VTR의 제조원가 절감을 기할 수 있는 동종업체 공동사업을 모색하기로 했다.

## 전자부품산업협의회

**동** 협의회는 본회 회의실에서 지난 11월 5일 삼성전자(주) 등의 모니터용 칼라 CRT 소켓 수급업체 5개사가 참석 칼라 CRT용 소켓 표준화 확정과 차기표준화 추진과제(6p Radial Taping용 반고정 저항기)를 선정하였다.

**부** 품산업협의회는 본회 회의실에서 11월 10일 (주)금성사 등 전자식냉장고용 Power Relay 수급업체 5개사가 참석, 전자식 냉장고의 Power Relay 표준화 협의를 하였다.

**부** 품산업협의회는 본회 회의실에서 11월 11일 (주)태평양시스템 등 부온도계수 서미스터 생산업체 5개사가 참석 부온도계수 서미스터 제품규격 표준화 확정과 설명회 개최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

**부** 품산업협의회는 본회 회의실에서 11월 12일 대우전자(주) 등 칼라 TV생산업체 3개사가 참석, 20", 21"칼라TV용 Trans-Switching 표준화 협의를 하였다.

**부** 품산업협의회는 본회 회의실에서 11월 17일 삼성전자(주) 등 진공청소기 생산업체

3개사가 참석, 진공청소기용 흡입구 표준화 협의를 하였다.

**부** 품산업협의회는 본회 회의실에서 11월 19일 연호전자(주) 등 코넥터 수급업체 8개사가 참석, 20mm Pitch 압접식 암 커넥터 등에 대한 표준화 협의를 하였다.

**부** 품산업협의회에서는 매월 회원사의 신개발 전자부품·소재를 수급업체에 홍보키 위해 조사한 11월 신개발 부품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수요업체에서는 적극 사용하여 바랍니다.

신개발부품명	개발업체	개발기간	개발규격	용도 및 기능	개발품의 특징
알미늄 Trans	동일전자통신 (T: 041582-7723)	'93.7~ ~'93.11	120V/60Hz 200V/50Hz	전자렌지용 전원공급장치	기존 동 Wire사용품 보다도 용량이 가벼워 원가절감 가능

## 통신산업협의회

**동** 협의회 Fax분과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본회 회의실에서 Fax용 TPH 표준화 5차 회의를 개최했다.

## 자기미디어산업협의회

**동** 협의회는 지난 11월 3일 본회 회의실에서 새한미디어(주) 등 6개사가 참석, 회의를 개최하고 정보교류 등을 위한 수출분과위 구성과 VO Case 등 2개 표준화 과제를 선정했다.

**수** 출분과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본회 회의실에서 새한미디어(주) 등 6개사가 참석, 자기미디어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회원사간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